

다마키야마 고분군(珠城山古墳群)

미와야마(三輪山) 산에서 마키무쿠가와(纏向川) 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아나시야마(穴師山) 산이 있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파생하는 가지 능선의 선단부 근처 정상부에 다마키야마고분군이 있다. 고분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1~3호분의 3기의 전방 후원분이 순서대로 자리 잡고 6세기 전반에 2호분, 중경에 1호분, 후반에 3호분이 축조되었다.

1955년에 토사를 채취하면서 1호분 후원부의 횡혈식석실이 노출되었고 4일간 급하게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958년 다시 토사 채취를 하면서 3호분의 후원부 횡혈식석실의 석재가 노출된 것을 계기로 고분군 전역의 측량과 2호분 분구에 대한 소규모 시굴 조사, 3호분 후원부 횡혈식석실과 전방부 횡혈식석실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3호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개발로 전방부 일부를 빼고는 소멸되었다. 1985년부터 1986년에 걸쳐 2호분과 3호분의 경계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1호분과 2호분의 분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군은 1978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호분은 분구 길이 50~55m, 후원부 지름 25m 전후이고 원통하니와가 출토되었다. 석실은 편수식(片袖式)이고 현실 길이 3.4m, 현실 폭 1.6m이다. 현실 중앙에 놓인 조합식 상형(箱形)석관과 측면 사이를 중심으로 스에키, 하지키 등의 토기류, 재갈, 안장, 등자, 행엽, 운주, 십금구, 식금구 등의 금동장마구류, 삼엽환두대도, 은상감대도, 창, 화살촉 등의 무기류, 호록, 패갑 등의 무구류, 도자, 가위, 못, 꺾쇠 등의 공구류, 금동제·은제·호박제 구슬, 유리구슬, 귀걸이 등의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3호분은 분구 길이 50m 전후, 후원부 지름 26m 전후로 원통하니와와 인물하니와가 출토되었다. 후원부 석실은 양수식(兩袖式)이고 현실 길이 4.7m, 현실 폭 2.1m, 연도 길이 5.1m 이상이다. 현실 중앙에는 가형 석관이, 현문부에 조합식 가형석관이 놓여있고, 스에키, 하지키 등의 토기류, 재갈, 안장, 등자, 행엽, 운주, 십금구, 식금구 등의 금동장마구류, 둥근 고리 자루 큰 칼(捻り環頭大刀; 손잡이 부분에 철사 등을 꼬아 만든 반원형 장식이 달린 칼), 대도, 창, 화살촉 등의 무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전방부 석실은 편수식이고 현실 길이 4.4m, 폭 2.1m, 연도 길이 4.4m 이상이다. 스에키, 하지키, 귀걸이 등이 출토되었다.

6세기대의 3세대 수장묘가 인접하여 연속적으로 축조되고 있고 서로 간 근친성이 명확한 것이나 분구와 석실 등의 유구나 출토유물의 양상이 판명된 점에서 출토된 화려한 금동장마구뿐만 아니라 고분 피장자를 미와노키미(三輪君) 등의 고대 씨족에 동정시키는 연구가 가능한 고분군으로서 주목되는 중요자료이다.